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일기

나의 일기에게,

나는 안드레아 델 베로치오의 스튜디오 보iero 견습생 생활을 하게 됐다. 열 네 살이 된 지금 나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기쁘지만 한편 슬프기도 하다.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예술가의 제자가 되었다는 건 기쁘다. 그는 지금 피렌체의 대표적인 화가이자 조각가이다. 하지만 가족과 벗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 그들은 내게 너무나 큰 존재라서 한동안 그들을 못 본다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 피렌체는 빈치와는 많이 다르다. 사람이 너무나 많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제단화를 그리거나 조각상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1466년 가을

나의 일기에게,

오늘로서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 아래서 일하게 되었다. 그 분은 내가 건축가, 기술자로 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공작님의 일이 잘 풀리기 바란다. 좋으신 분 같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앞으로 그분이 내 능력을 사용해서 그분에게 이익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해 내 기술이 좋아지고 증명될 것이다. 내 발명품들은 아직 괜찮긴 하지만, 앞으로는 훌륭하게 만들고 싶다. 내 발명품들로 공작님께 기쁨을 드려야 할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

1482년

나의 일기에게,

나의 해부학 신체도인 비트루비우스의 인체가 오늘 완성되었다. 비트루비우스는 원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그 사람을 그리기로 한 이유는 인체의 팔, 다리는 몸을 완전히 펼칠 때 몸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리를 모으고 있으면 머리, 다리, 팔이 하나의 네모 형태를 이룬다. 이것은 고대 로마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의 신체 균형을 보여 준다. 대부분의 그림이나 밑그림처럼 거울 원고로 만들어졌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읽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아무도 내 이론을 가로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밀라노에 체류하는 동안 나를 질투하는 과학자들이 나의 군사 도면을 가로채려고 했다. 그의 몸 해부를 통해 그 신체도를 그리게 되었다. 나의 발견, 그림은 나에게 있어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나의 연구와 더불어 인체에 대한 내 지식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

1492년

나의 일기에게,

오늘 미술관에 모나리자 그림이 걸렸다.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게 작업해왔다. 나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다. 내 피렌체 작업실은 정말 일하기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더욱 색감이 풍부하고 값비싼 물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업실의 조명도 훨씬 더 밝아서, 색상을 더 잘 분간할 수 있다. 게다가 조명을 밝게도, 어둡게도 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내가 받은 영감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그린 흐린 자화상도 큰 인기를 누렸다. 드디어 해냈다.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미술관에 걸린 모나리자 앞에 모두가 모여들어 감상하는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볼 수 있다. 나의 새로운 기법인 사실주의 덕분에 내 그림이 맛있게 만화 같은 느낌이 아니라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다. 공작님을 떠난 지금,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모나리자가 나의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1503년

나의 일기에게,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77세이셨다. 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정말로 안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임종을 지켰더라면, 후회스럽다. 어쨌든 삶은 계속되겠지만, 이번엔 극복하기 힘들 것 같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평화 속에 잠드시기를.

1504년 7월 9일